

왜 손님을 집으로 초대하지 않나요?

일본사람이 다른 사람 특히 외국인을 쉽게 집으로 초대하지 않는 것은 상대에 대한 준비의 어려움과 좁은 주택구조 그리고 집의 안과 밖을 분명하게 구분하는 관습 때문임

1. 상대를 생각하는 마음

- 일본사람은 습관적으로 상대의 기분과 반응을 필요이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
-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특히 외국인을 집으로 초대하는 일은 대부분의 일본사람들에게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님
- 만약 외국인을 초대한다면, 문화적 이질감을 줄이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하는가에 대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될 것임
- 결국 초대하는 것을 어렵다고 판단하고 단념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임

2. 주택구조에 따른 이유

- 일반적으로 집이 작고 방이 좁아서 집으로 손님을 초대하기 꺼려하는 일본사람이 많음
- 결코 일본이 1인당 주거공간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많이 작은 것은 아니지만,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계된 일반적인 주택 구조를 보면 매우 좁게 느껴짐
- 일본의 주택을 ‘토끼우리(rabbit hutch)’ 같다고 표현하는 경우가

- 있을 정도로 세계적으로 일본의 집은 작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 ‘토끼우리’ 라는 표현은 1979년 EC(유럽공동체)가 발표한 비공식 보고서 ‘대일 경제전략보고서’ 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음
 - 보고서 원문의 프랑스어 ‘cage a lapins’는 프랑스의 집단주택을 의미하는 것으로 영어로 직역하면 rabbit hatch임
 - 즉, 토끼우리는 좁고 획일적인 도시형 집단주택을 표현하기 위해 쓰인 말로, 일본도 프랑스의 집단주택과 같은 곳에 거주하고 있다는 뜻으로 표현했을 것으로 보임
- 그렇다 하더라도 일본의 주택이 상대적으로 넓다는 의미는 아니며, 누가 보더라도 좁은 공간임에는 틀림없음
- 보고서에서도 ‘일본은 서구사람 입장에서 보면 토끼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집에 사는 노동중독자의 나라’ 라고 표현하고 있음
 - 따라서 주거에 관한 언급부분을 ‘프랑스와 같은 좁고 획일적인 도시형 집단주택’ 으로 바꾸더라도 ‘좁은 집에 살면서 미친 듯이 일한다’ 는 의미에는 변함이 없음
- 즉 ‘토끼우리’ 는 ‘서구에 비해 좁은 집’ 이라는 우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좁다’ 라는 의미로 쓰인 것에는 틀림없음

3. 집의 안과 밖을 구분하는 습관

- 일본에는 집의 안(우치, うち)과 밖(소토, そと)을 분명하게 구분하는 개념 있음
- 집안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 특히 외국인을 집으로 초대하여 사적인 공간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 익숙한 일본사람은 많지 않을 것임
 - 다만 상대와의 친밀도에 따라서는 집으로 초대하는 경우도 있음